

농림수산부장관에 최인기씨 임명

-김양배 전장관 UR 이행계획서 수정관련 문책

김영삼 대통령은 4월 4일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수정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최인기 전내무부차관을 임명했다.

주둔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장관의 경질배경에 대해 김 대통령은 귀국후 UR이행계획서의 수정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수정이 농민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농민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UR협상과 관련해 이행계획서를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국민에게 공언했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수정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했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단안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인기 신임장관은 경기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66년 행정고시에 수석합격한 후 내무부 재정·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최 신임장관은 30대에 전북과 충남부지사를 지냈으며 40대에는 광주직할시장과 전남도지사를 거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구의 다부진 외모에 성격은 교제범위가 넓고 소신이 뚜렷해 따르는 사람이 많은 전형적인 보스형.

또한 분석력과 판단능력이 뛰어나 행정능력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 순발력있는 감각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축산물 「쿼타공매제」도입 검토

-국영무역에서 제외된 21개 농산물

UR농산물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국영무역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수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림수산부는 「쿼타공매제」를 도입하여 축산물 수입을 조절한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축산물 수입처리 및 그 수익을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영무역 및 부과금 대상품목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을 제시해서 그 부과금을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BOP품목을 국영무역 및 부과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초 합의하지 않았고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창구를 일원화하고 부과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닭고기 등 21개 품목을 국영무역에서 제외시켰다.

우리의 주요 축산물이 국영무역이나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자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책의 하나로 「쿼타공매제」의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 쿼타공매제란 ?**

농산물 수입권한 자체를 공매해 수입가격과 공매가격간의 차액을 농어촌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국내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수입권한을 낙찰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창구를 통해서만 농산물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국제가격과 수입품의 공매가격 차이를 국가가 환수하는 국영무역과는 기금에 납입할 판매차익이 사전에 공매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지만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과 농가피해 최소화에는 거의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계획

- 정부, 새로운 육류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물도 타제품과 같은 고유상표 판매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육류유통시스템인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 유통체계는 도축, 가공, 판매단계별로 운영주체가 각각 독립되어 위생적인 고품질의 육류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를 제도적으로 연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의 냉장육, 부분육, 브랜드육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고기 품질간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축산물등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조기 확대 실시하고 도축전에 충분한 계류를 실시토록 하여 양질의 고기생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축산물에도 고유

상표 사용이 일반화되어 일반공산품과 같이 상표만 보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신용거래를 정착시켜 개방화에 대비한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부, 가축방역 홍보교육용 비디오 배부

-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최근 경제적 피해가 큰 가축질병에 대한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농가들 사이에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가축방역 홍보에 적극 나섰다.

축협중앙회는 농림수산부의 가축방역 계획에 따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돼지와 젖소의 질병예방 및 일반 방역관리에 대한 내용의 비디오 10종을 제작하여 각 시, 도 및 관련기관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 배포한 비디오 내용은 ▲제1편 : 효과적인 유방염진단과 소득증대 ▲제2편 : 고품질 우유생산 ▲제3편 : 젖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4편 : 효과적인 부루셀라 방제대책 ▲제5편 : 소의 건강상태 점검요령 ▲제6편 : 모돈 및 자돈의 질병관리 ▲제7편 : 돼지의 위축성 비염 ▲제8편 : 돼지의 세균성 호흡기질병 ▲제9편 : 돼지의 마이코플라즈마 및 바이러스성폐렴 ▲제10편 :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 및 근절대책 등이다.

수급조절용 수입 냉동돼지고기 방출 개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 25일 선적한 대만산 냉동삼겹살 방출을 개시하였다.

최근 산지 돼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한 냉동삼겹살을 4월 9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시켰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입 삼겹살의 양과 경락가격은 4월 11일 31,200kg(1,300box, 1box당 24kg)이 평균 4,834원에 경락되었으며, 12일에는 19,200kg(800box)이 4,809원, 13일 19,200kg에 4,780원, 14일 14,400kg(600box)이 상장되어 4,716원에 경락되었다. 이에 비해 제 일제당, 미원농장 등의 삼겹살 도매가격은 5,300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에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입돼지고기는 대만산이었지만 앞으로 가격이 낮은 덴마크산도 도매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대만산 삼겹살의 국내도착가격은 관세와 제비용 5%를 포함하여 4,732원이나 덴마크산은 3,153원으로 매우 낮아 산지돼지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서울 3개도매시장 평균경락가가 4월 11일 지육 1kg당 2,358원에서 14일 2,336원으로 다소 낮아져 수입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담보법 폐지로 대출조건 대폭 완화

축협중앙회는 농지담보법 폐지와 함께 담보취득제한 및 대상 확대에 따라 농지담보와 관련한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담보대출은 축산 및 농업경영자금에 한정하였고, 대출대상자가 농민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 취득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국한했던 것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돼지 유전자지도 작성 프로젝트 추진

—유럽 육종회사 적극 지원

유럽의 육종회사들은 최근 돼지의 유전자지도를 만


드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돼지 유전자지도 제1호는 '94년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영국의 육종회사들은 유전자지도의 활용법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지도의 활용이란 예를 들어 번식에 관련된 유전자를 분리함으로써 어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돼지의 유전자를 전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전자지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운동을 고려하여 신중히 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94 세계 양돈 박람회 개최

—6월 10일~12일까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인디애나주의 수도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94 세계 양돈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의 약 320개사에서 1,100여 품목의 최신기술의 기구, 사료 및 의약품, 종돈, 문서기록 방법, 축산기자재 등이 전시될 예정이며, 7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돼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나 사양하는 돼지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세미나 개최, 음악행사, 돼지경주, 바베큐 요리대회, 어린이광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잡습니다

월간양돈 4월호 174페이지 내용 중 「환경처는 3월 9일 오수·분뇨……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입법예고가 아닌 “환경처 내부검토”로 정정합니다.